"장흥 가축시장 '일반牛'도 거래를"

생후 5~6개월 '등록 혈통우'만 취급
지역 한우농 타지 우시장 이용 불편

장흥지역 일부 한우 사육농가들이 당국 무관심과 장흥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우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강진 등 타지역 우시장을 통해 한우를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흥지역 축산농가에 따르면 현재 장흥축협이 매월 13일과 28일 두 차례 개장하고 있는 '장흥 가축시장'에서는 혈통용으로 등록된 생후 5~6개월짜리 '등록혈통우'만 경매방식을 통해 거래하고 있을 뿐 일반 한우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우를 거래하려는 장흥지역 한우 사육농가들은 인근 강진지역 우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흥가축시장의 평균 거래실적은 90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부진은 장흥 축협이 일반 한우도 함께 취급하는 일부 타지역 우시장과는 달리 생후 5~6개월 된 등록혈통우만 경매로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흥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전담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축협으로부터 수송비를 지원받아 농가와 가축시장을 오가는 용달차 역시 10대밖에 없는 것도 일반 한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98년 우시장 관리 운영권이 지자체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부터 장흥군이 한우 입식지도에만 주력했을 뿐 한우 거래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데다, 이전 사업이 진행되던 3년여 동안 우시장이 폐쇄된 것도 거래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흥 축협 측은 이에 대해 "등록혈통우 거래로 전환해 가는 추세에 맞추다 보니 일반우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 제반 준비가 부족했다"며 "수송차 확보와 인력보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매월 2차례 개장체제를 3회 개장 체제로 확대, 일반우 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축협은 지난해 3월 군비 1억 원을 포함, 총 5억7천4백만 원을 들여 1천700평 규모의 우시장을 이전 개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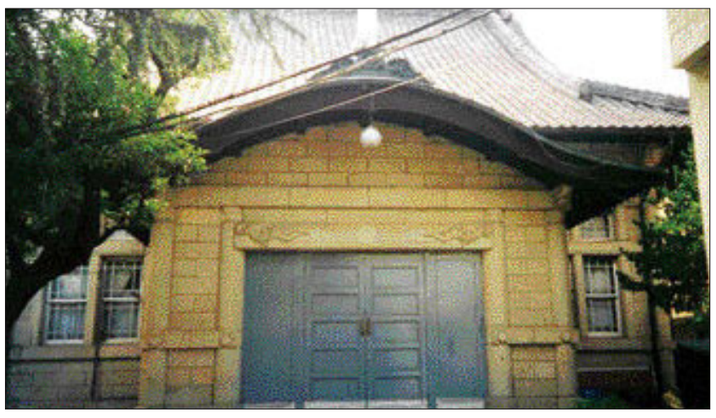
장흥군의 총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3만2천여두로 전남에서는 1위, 그리고 전국에서는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영광 굴비 말리기 손길 분주

영광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업자들이 천일염에 염장한 조기를 해풍에 말리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참조기가 풍어를 이루면서 질 좋은 영광굴비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근대 건축물인 구 동본원사를 철거할 계획이어서 문화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목포 동본원사 자리 주차장 추진
"근대 문화재… 철거해선 안돼"

목포 문화단체들 촉구

근대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건물(현 중앙교회)'이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철거될 예정이어서 지역 문화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무안동 2가 4번지에 위치한 구 동본원사는 347평의 대지에 장방형의 단층 건물로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양식을 띄고 있다. 지붕은 일본식 기와를 사용한 팔작지붕이며 벽체는 정형으로 다듬은 석조 갓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구 동본원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자리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목포문화연대 측은 14일 성명을 내고 "목포에 진출한 첫 번째 일본인 불교사원이었던 중앙교회 건물이 목포시의 주차장 조성 계획에 의해 철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이 건물 철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청소위탁사업 개선 예산절감키로

광산구, 태스크포스팀 구성

광산구가 현행 민간위탁 대행방식의 청소행정을 개선, 예산 절감에 나선다.

광산구는 최근 구의회와 시민·환경단체, 대학교수, 공무원 등 각계 인사 11명으로 '청소위탁사업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했다.

현재 5개 자치구와 동일한 '총액 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 관련 예산 128억 중 2개 대행회사의 위탁처리비로 78억원의 구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수완지구와 신창지구, 제 2 하남지구, 선운지구 등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구가 크게 늘어나 청소위탁사업에도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청소위탁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는 태스크포스팀의 토론과정을 거쳐 내년 1월~2월중에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달에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의 자치구에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학부모·교사 정성이 아이들 꿈 키워"

완도교육청 '학부모 연찬회'

완도교육청(교육장 최찬범)은 지난 1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완도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2006 학부모·유치원 교사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관내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교(송원대 복지학과) 교수를 초빙해 '엄마 내 마음을 알아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김영교 교수는 학부모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실제 아동지도와 관련한 생생한 강의로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찬범 교육장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자"면서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보성자활기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보성자활후견기관(관장 최의기)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천4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보성·벌교읍 등 12개 읍·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300여 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보성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벌교읍에 설립됐으며, ▲두레 집수리 ▲어울림 건축 ▲사랑나눔 가사·간병 ▲벌교 딸기 ▲율포 양계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구례 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짓기'

구례 로타리클럽(회장 양홍권)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모(71·산동면)씨 집을 신축했다.

구례 로타리클럽은 토담집에서 91세의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최씨를 격려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기금 700만원에 군비 500만원을 보태 회원들이 손수 집 짓기에 나선 것.

/구례=김동호기자 dhkim@